

## 주류시장에도 웰빙바람 전통주 상표출원 급증

우리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웰빙바람을 타고 주류시장에도 우리 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주와 관련한 상표 출원이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전통주와 관련한 상표 출원은 지난 2000년에 40여건이 출원되었으나 2003년 69건, 2004년 10월 말 현재 74건이 출원되어 이 분야에 대한 상표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주는 안동 소주를 비롯해 복분자주, 인삼주, 머루주 등 1백50여종에 이른다. 전통주와 관련한 상표출원은 전통적으로 한산 소곡주, 전주 이강주, 고창 복분자주 등 전통 민속주나 향토주를 대상으로 한 출원이 많았으며, '92년 출시된 국순당의 '백세주'를 시작으로 전통주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오십세주, 오백세주, 백년주, 천년주, 천세주, 만세주 등 나이, 연수와 연관된 상표가 출원되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문화도 웰빙 영향을 받아 건강을 고려한 기능성 전통주의 상표출원 증가가 눈에 띈다. 예를 들면 성인병 및 변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는 배혜정누룩도가의 '부자(富者)'와 오가피 등 한약재를 첨가한 (주)우리술의 한방 막걸리인 '오래오래' 등의 탁주류가 있으며, 약주류로는 신경통,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명주가의 '마디마디', 헛개나무 술로 숙취 해소, 구취 제거 등의 효과가 있는 화삼양조의 '예술', 국순당의 삼겹살 전용주인 '삼겹살에 매밀한잔', 동충하초 등 한약재를 배합하여 양기를 복돋아 준다는 청송불로주의 '낭군님' 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도 사회 전반적으로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주류시장에도 웰빙문화와 맞물려 순하고 몸에 좋은 '웰빙주'를 찾는 사람이 늘어감에 따라 전통주도 건강 지향적인 술과 관련한 상표출원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이기도 한 배혜정누룩도가는 성인병 및 변비 예방에 효과가 있는 탁주 '부자(富者)'를 상표출원 하였다.

## 국내 대학들, 인터넷 지적재산권 관리에 극도 취약

주요 대학의 한글 인터넷 주소를 일반인들이 대거 선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도메인 등록업체 사이언티티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한모 씨가 지난 1월 10일 주요 사립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한글.com' 또는 '한글.net' 도메인 2백50여개를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 씨는 자신이 확보한 도메인을 해당 대학에 팔기

## 특허청 정보화 수준 정부부처 내 최고!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중앙행정기관의 객관적 정보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2004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보화수준평가'에서 44개 평가대상 기관 중 1위(94.4점)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44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화기반 역량, 지식정보자원관리 역량, 조직혁신 역량, 조직구성원 역량, 대국민 서비스 역량 등 5개 분야에 대해 정보화 수준 평가 작업을 실시했다.

특허청은 평가대상 기관 중 유일하게 모든 평가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으며, 정보화기반 역량과 조직구성원 역량은 전 부처 중 단연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황변화를 감안한 매년 3개년 간의 연동계획 수립, 특허넷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연간 3천80억원의 비용절감, 상시 혁신제안 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조직혁신사례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허청은 2002년에도 정보화 수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2003년 2위에 이어 이번에 다시 1위를 차지함으로써 특허청의 정보화 수준이 정부부처 내에서

최고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정보화 수준 평가 이외에도 특허청 정보화에 대한 우수성은 다른 여러 평가에서 입증되어 왔다. 지난 2002년에는 특허넷 시스템으로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2003년에는 국가정보원 주관 정보보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04년에는 정부혁신 국제박람회에 특허넷 시스템을 출품하여 각국에서 높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처럼 특허청의 정보화가 최고수준에 이른 것은 IT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와 고객의 요구수준을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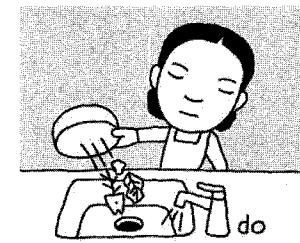
특허청은 현재의 정보화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차세대 특허행정시스템인 특허넷Ⅱ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왔고 올 2월에 개통 예정에 있다.

이 시스템이 개통하게 되면, 24시간 365 일 논스톱(Non-stop) 전자민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실시간 민원처리가 가능해지며, 지능형 검색 등 첨단 심사환경이 마련되는 등 특허청의 정보화 수준이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알아 두세요!

##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이 너무 복잡하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1월 17일부터 단순화된 분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동물이 먹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음식 쓰레기가 될 수 없는 것, 즉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하는 것을 4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 일반쓰레기의 4개 항목

- 소, 돼지 등 육류의 털과 뼈
- 조개, 전복 등 패류 껍데기
- 호두, 밤 등 견과류 껍데기와 살구, 감 씨앗
- 녹차 등의 티백이 해당된다.  
반면 생선뼈를 포함한 다른 음식물은 음식 쓰레기로 분류하면 된다.

## '음식물 쓰레기'

### 이렇게 활용하세요!



인하대 정보통신공학부 이 일항(59) 교수는 세계적인 권위의 저명학회 4곳으로부터 '펠로(fellow)' 추대를 받았다. 펠로란 저명한 학술단체들이 학회의 명예와 명성을 대표할 만한 탁월한 연구 및 학술 업적을 낸 극소수의 석학에게 주는 학술 칭호. 한국 과학자가 4곳의 저명학회에서 펠로로 추대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인하대 측은 밝혔다. 이 교수는 '96년 영국 왕립 전기전자공학회(IEE)에 펠로로 첫 추대됐으며 2002년엔 미국 광학회(OSA)와 전기전자공학회(IEEE)로부터 잇따라 펠로로 추대됐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전세계 2만 명의 회원을 가진 미국 광자공학회(SPIE)가 펠로로 추대했다. 학계에 따르면 노벨상이 귀족 작위 중 '공작'에 해당한다면 펠로는 '백작'에 벼금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 인하대 관계자는 '펠로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학

제에서는 노벨상 등용문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 교수도 노벨상 후보에 상당히 근접한 과학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 예일대 유학 시절(1976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예일대 존 펜 교수의 가르침을 받았다. 또 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제과학기술논문색인(SCI)에 2백10여 편이 수록됐으며 1백20여 개의 특허를 갖고 있다. 그의 논문은 광통신, 반도체 양자구조, 나노전자공학, 광자논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용되고 있다.

이 교수는 '1990년대 대덕연구단지 전자통신연구원에서 동료 1백여명과 수천 편의 논문을 쓰고 낮에는 실험을 한 것이 헛되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 연구 중인 몇 가지 주제를 세계 유수의 저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명정의 약자를 주소로 하거나 인터넷 주소란에 '○○대학교'와 같이 학교명을 입력하면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한글주소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등록을 시작한 '○○대학교.kr, ○○대학.kr' 도메인도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사이언티티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도메인을 선점 당한 대학들은 등록권자와 협상을 통해 비싼 값에 되사오거나 법정소송 등을 거쳐 되찾는 수밖에 없어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 골 껌질 : 잘 말린 뒤 목욕할 때 물에 넣으면 향기가 좋다. 가스레인지에 석쇠를 놓고 구우면 부엌에서 나는 잡냄새를 없앨 수 있다.
- 오렌지 껌질 : 물 600㎖에 오렌지 1개 껌질을 넣어 30분간 끓인다. 이 물에 걸레를 적신 뒤 목제가구를 닦으면 의외로 빠 잘 지워진다.
- 레몬 껌질 : 과육이 붙어있는 안쪽으로 변기나 세면기를 닦으면 물때가 잘 뒹인다.
- 원두커피·녹차 찌꺼기 : 말려 모아둔 뒤 신발장,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에 놓아두면 악취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
- 티백 : 싱크대 기름때를 닦는데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녹차의 성분이 기름을 분해하며 항균 효과도 있다.
- 달걀 껌질 : 입이 좀은 병을 세척하는데 사용한다. 방법은 잘게 부숴 물과 함께 병에 넣은 뒤 잘 흔들어주면 병 속이 깨끗해진다.
- 감자 껌질 : 싱크대,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닦으면 광이 잘 난다.